<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와 문학관광 콘텐츠화 방안*

김 공 숙**

Ⅰ. 머리말
Ⅱ.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
Ⅲ.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Ⅳ.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학관광 콘텐츠화 방안
Ⅴ.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경북 영주 순흥 비봉산을 배경으로 한 조선 후기의 내방가사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와 문학관광 콘텐츠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살펴보고, <덴동어미화전가>를 원천소재로 한 경북 영주의 대표 공연콘텐츠인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를 분석했다. 그리고 <덴동어미화전가>의 새로운 문화콘텐츠화

* 이 논문은 2019년 BK21플러스 공동국제학술대회(2019.01.17.~18.,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발표한 필자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조교수,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운영위원 / kgs789@hanmail.net

방향으로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제안해보았다.

덴동어미는 거친 운명에 휘둘리더라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하층민의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며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는 낙천성을 지닌 인간상이다. 덴동어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충분한 공감과 감동을 전달한다.

영주 순흥면에 조성되는 한국문화테마파크에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상설공연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덴동어미화전가>를 단순히 마당놀이 콘텐츠 관람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을 만들어 공연과 문학관 체험을 병행하게 한다면 관광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덴동어미화전가, 문화콘텐츠,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문학관광콘텐츠, 문학관

Ⅰ.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경북 영주 순흥 비봉산에서 여인들이 화전놀이를 하면서 부른 조선 후기 내방가사(內房歌辭) <덴동어미화전가>[1]의 문화콘텐츠[2]로서의 가치와 문학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가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6년 경북 영주시에서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를 선보이기 시작한 때로 보인다. 이후 지역축제와 행사 및 평창동계올림픽 문화행사에서도 지역 초청작으로서 연행이 되었고, 일본, 베트남 등 해외 공연까지 이어져 영주시가 내세우는 지역 대표 '킬러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영주시는 2020년 개관 예정인 영주시 순흥면의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마당놀이 공연장에서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를 상설 공연할 계획이다.[3]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검토하여, 작품 배경형 문학관광 콘텐츠 '덴동어미

1) 명시된 제목은 그냥 화전가이지만 화전놀이에 참여한 덴동어미(덴 아이의 어머니)의 인생유전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이렇게 불린다. 1979년 학계에 처음 보고되고(류탁일, 「덴동어미의 비극적 일생」, 『제14회 한국어문학회 전국발표대회』, 1979.), 텍스트가 활자화(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되어 소개된 후 많은 학자에게 높은 관심과 조명을 받아왔다. 이후 박혜숙의 주해가 이루어졌다. (박혜숙, 「주해 <덴동어미화전가>」, 『국문학연구』 24호, 국문학회, 2011, 325~370쪽.)

2) 본고는 문화, 예술, 창조, 소통의 차원에서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인문학적 견해의 정의를 취한다.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를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원형성, 잠재성, 활용성)를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과정'으로 보거나(심승구, 「한국 술 문화의 원형과 콘텐츠화 – 술 문화의 글로벌 콘텐츠를 위한 담론체계탐색」, 『인문콘텐츠학회 2005 학술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05, 55쪽.), '대중소비문화의 산물로 대중의 유희적 소비 욕구에 맞춰 문화 혹은 문화원형을 원천소스로 하여 기획 생산된 창의적 내용물 특히 다양한 미디어에 담기는 문화적 내용물'로 보는 견해이다.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제14호, 인문콘텐츠학회, 2009, 235쪽.) 본고는 산업적 가치 또는 경제적 효용을 획득하기 위한 콘텐츠 활용적 측면까지 문화콘텐츠적 개념을 확장해 사용할 것이며, '문화콘텐츠', '콘텐츠'를 혼용하고자 한다.

3) 영주시청 담당자 전화 면담. 2018.12.23.; 김세동, 「영주 `덴동어미전` 일본·베트남서 공연한다」, 『경북매일』, 2017.02.06.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91.

화전가 문학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화전가와 달리 <덴동어미화전가>는 덴동어미라는 한 여성이 구연한 '인생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고 심도 있게 서술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덴동어미는 네 번의 혼인과 네 번의 상부(喪夫)를 겪으면서 중인에서 하층민으로 전락한다. "첫째 낭군은 추천(鞦韆)에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4] 고난과 슬픔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그런데도 파란만장한 인생유전을 화전놀이를 통해 집단적 신명으로 풀어내며 희망적 삶의 의지를 그려내고 있다.

가부장제 봉건사회에서 상부는 수절이든 개가이든 혹독한 시련과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문제성과 리얼리티 면에서 단연 돋보이며, 우리나라 가사가 도달한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된다.[5] 하층 여성인 덴동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고통과 인간적 연대의 문제를 매우 사실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적지 않지만, 이를 원천자료로 활용한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6] 주목할 만한 것은 <덴동어미화전가>의 연구성과와 현대적 의미를 파악해 문화콘텐츠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 최은숙의 연구, <덴동어미화전가>를 원천으로 한 문화콘텐츠의 현대적 변용과 교육적 활용 양상을 분석한 김나연의 논문이 있다.[7] 백순철은 '화전가'를 대중매체 콘텐츠, 산업정보 콘텐츠 등 좀 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전화(轉化)할 때의 적절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면서, 교육연구 성과물의 구축 못지않게 대중적 확산과 소통을 위한 화전가 콘텐츠의 활용이 중요하다

4) 이후 작품의 인용문은 박혜숙의 주해 본을 참조하며, 행 제시와 인용은 생략한다.
5) 박혜숙,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3권 - 고전문학 下 : 성, 사랑, 일상』, 휴머니스트, 2006, 78쪽.
6) 한편,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 김윤식 외 4인 『고등학교 문학』(천재), 이도영 외 7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창비)에도 학습 제재로 수록되어있다.
7) 최은숙, 「<덴동어미화전가>의 연구성과 및 현대적 의미」, 『국학연구론총』 제18집, 택민국학연구원, 2016.; 김나연, 「덴동어미화전가 현대적 변용의 교육적 함의」,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고 강조한다.[8] 한편 고순희는 가사문학이 지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9]

본고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디딤돌로 삼아 지역 문화자원의 재인식과 활용의 차원에서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와 새로운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탐색한다. 이 가사는 화전가의 전형성을 보여주면서도 구조의 독특함과 생생한 캐릭터, 사회적 공간과 배경을 개연성 있게 형상화하여 원천소재로서 가치가 풍부하다고 판단된다. 부정기적으로 연행 중인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가 상설공연을 하게 된다면, 지역 문화의 전승 보존과 원천소재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지자체에서 문학을 소재로 새로운 관광자원화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본고의 발상은 경제적 효용은 물론 <덴동어미화전가>가 지닌 문학적 가치의 대중적 구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적 콘텐츠화의 밑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

1. <덴동어미화전가>와 덴동어미의 인생유전

<덴동어미화전가>는 1938년경 작자 미상[10]의 필사본 『소백산대관록(小白

8)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시가문화연구』 Vol.34,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본고는 백순철의 선행연구에서 발상을 얻었다.

9) 고순희, 「가사문학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Vol.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10) 최근, 그동안 막연히 여성 작자의 창작이라 간주하였던 「덴동어미화전가」의 작자를 석창(石窓)이라는 호(號)를 사용한 인물로서, 영주시 단산면 좌석리 농암 촌에 거주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망국(亡國) 조선의 유민(遺民)으로 자처하며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산중에 은거했던 구(舊) 향촌 사족 출신의 남성임을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의 작자 문제」, 『국문학연구』 38권, 국문학회, 2018.

山大觀錄)』에 실린 815행의 장편 가사이다. 창작연대는 내용의 “병술년(고종 23년 추정, 1886년) 괴질”을 참고하면 20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화전가는 화전놀이 과정을 서술하는 서사적 구조에 앞뒤로 작가의 감회를 붙이고, 작품 중간중간에 주정(主情)적 독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전놀이 준비부터 출발까지도 긴 편이다. 반면 <덴동어미화전가>는 준비와 출발 과정은 짧고 화전놀이 참여 여성들의 이야기가 주가 된다. 일반적 화전가의 시간적 순차적 구조를 따르면서도 인물전(傳)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이 덴동어미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장편 가사가 지닌 서사성을 극대화하여, 전형적인 화전가의 양식에 다층적 액자구조의 서사 기법을 도입해, 한 여성의 일생을 곡진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 화전가의 화전놀이 양식을 따르는 외부 이야기로 시작하여, 덴동어미의 일생을 담은 내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내부 이야기 속에는 세 번째 남편 황 도령의 내력 담이 액자 속의 액자로 삽입되어 있다.

청춘과부와 덴동어미라는 두 인물의 뚜렷한 대비가 두드러지는 것도 특징이다. 화전놀이가 시작되어 유흥이 끝나자마자 청춘과부가 탄식하며 개가에 대해 고민하자 덴동어미가 개가를 만류하며 자기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고, 파란만장한 인생 담이 끝나자 청춘과부는 개가하지 않기로 하며 봄 춘자 노래를 부른다. 다음은 작품 속 지명, 사건, 인물 등을 고증한 덴동어미의 연보이다.[11] 이를 통해 덴동어미의 지난한 삶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다.

11) 김하라,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집, 2017, 418쪽. 덴동어미가 임 이방의 딸이므로 임 여인이라 칭하고 있다.

<표 1> 덴동어미 임 여인의 연보

나이(시기)	행적과 사건
1세 (19세기 중반)	· 순흥 읍내에서 임 이방(임 상찰)의 딸로 태어남
16세	· 예천 읍내로 시집가서 장 이방의 며느리가 됨
17세	· 남편 장 씨가 그네에서 추락해 사망
18~19세	· 상주 읍내의 부유한 이 상찰의 며느리가 됨(이승발의 후취)
20대 초 (1871년)	· 상주에 간 지 3년째 되던 해(1871)에 조병로[12]가 상주 목사로 부임하고 그 이후 몇 년 사이 시가가 급격히 몰락함
30대 중·후반	· 병술년(1886) 여름, 괴질로 남편 이승발의 사망 · 울산 읍내에서 비슷한 나이의 도부장수 황 도령을 만나 같이 살게 됨
40대 후반 (1890년대 후반)	· 함께 산지 '10년'이 되었을 때 황 씨가 산사태로 사망 · 엿장수 조 첨지와 재혼하고 그 무렵부터 순흥 인근에 거주하게 됨[13]
50대 초 (19세기 말엽)	· 조 씨와 재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아들이 태어나 첫돌 무렵까지 귀엽게 키움 · 19세기 말 어느 홀수 해 정월 대보름에 수동별신굿[14]이 열림 · 그 며칠 전 정초에 남편 조 씨가 화재로 사망하고, 아들은 큰 화상을 입어 '덴동이'가 됨 · 덴 아이의 어머니라는 뜻의 '덴동어미'라는 이름을 얻음
60세 (20세기 벽두)	· 덴동이를 업고 고향인 순흥으로 돌아감 · 3월, 엿 고리를 이고 순흥 비봉산 화전놀이에 참석함

12) "성 쌓던 조 등내(等內)"(지방의 원이나 수령)로 등장한다. 1871년 9월 상주 목사로 부임한 조병로는 그해에 상주의 읍성 및 제방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방은 남아 있지 않지만, 조공제(趙公堤)라는 이름으로 전한다. 김하라, 앞의 논문, 409쪽.

13) 조 첨지의 활동 반경은 "의성 장 안동장 풍산장과 노루골(장동장) 내성장 풍기장에 한 달 육장 매장 보니 엿 장사 조 첨지 별호 되네"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경북 북부의 장터이며, 순흥 읍내에 인접해 있다. 김하라, 앞의 논문, 416쪽.

14)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수동)에서 3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에 열린 별신굿으로, 일종의 동제이다. 수동별신굿은 만 2년에 한 번씩 홀수 해에 거행되었는데 마지막 연행은 1903년이라고 한다. 김하라, 앞의 논문, 417쪽.

2.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재로서 <덴동어미화전가>의 가치

고전 텍스트인 <덴동어미화전가>를 콘텐츠화하려면 무엇보다 작품이 지니는 핵심적 요소를 추출해 이를 시대의식에 맞는 주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덴동어미화전가>가 '지금의 우리'에게 전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덴동어미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강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개가와 상부가 이 작품 전개의 중요한 모티프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물의 성격과 작품 전체의 핵심적 주제는 덴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조언하는 결말의 내용[15]에 집약되어 있다고 본다.

문학 치료의 관점에서는 덴동어미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이유를 숱한 고생 경험을 통해서 통찰과 '달관'의 경지에 이르러 여유와 신명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본다.[16] 그러나 덴동어미의 인생관은 달관과는 차이가 있다. 덴동어미는 하층민으로 몰락하고 남편을 네 번이나 잃고 아이까지 장애를 입었으며, 자신도 "자라목에 발가락이 무지러졌지만" 고통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강인한 태도로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인간성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삶도 자연처럼 순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고통의 삶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절망을 견뎌내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덴동어미는 인간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있다.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이며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끝까지 투쟁하는 강인함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며 삶을 충실히 이어간다. 그 결과 60세가 되어 장애를 얻은 덴동이를 업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화전놀이에 처음 참여할 때부터 적극적이며 잘 노는 여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17] 오늘날 여러 이유로 삶을 포기하려 하는 사람들이 적지

15) 관련 대목은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것이요 / 새는 조금 우는 것이요 달은 매양 밝은 것이요 바람은 일상 부는 것이라 / 마음만 조금 태평하면 조금 보고 조금 듣지 보고 듣고 조금 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16) 김은희,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 - 치유의 과정에 주목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 Vol.39,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55~56쪽.

않다. 그런 이들에게 덴동어미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과정을 견디며 긍정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고귀한 가치임을 보여준다.

둘째, 화전놀이에 참여한 여성들이 덴동어미의 인생 내력을 듣고 모두 변화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힘은 공감과 치유에서 온다. 누구보다 고통의 삶을 살았던 덴동어미의 이야기는 화전놀이에 온 여성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고, 청춘과부의 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몰입을 높였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덴동어미의 인생 담이 펼쳐진 곳은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의 대표적 상춘 행사인 화전놀이 판이다. 가장 슬픈 이야기가 꽃이 피고 새 우는 즐거운 현장에서 펼쳐짐으로써 괄목할만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기쁜 날만, 온전히 슬픈 날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의 은유일 수 있다. 슬픈가 하면 기쁨이, 기쁜가 하면 슬픔이 있다. 슬픔과 기쁨은 한 몸이며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약동하는 봄날 덴동어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는 것이다. 덴동어미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청춘과부는 개가가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종반에는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참가 여성들은 둘의 대화를 들으며 과부이든 아니든, 지체와 빈천이 같거나 달랐든, 같은 여성으로서 덴동어미의 기구한 삶에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18]

이로써 형식적일 수 있는 화전놀이가 진정한 연대와 신명의 놀이로 변화한다. <덴동어미화전가>는 덴동어미의 이야기를 통해 으레 해오던 관습적 화전놀이를 진정한 축제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덴동어미의 자기서사[19]를 중심으로 한 <덴동어미화전가>의 순환·확장적 구조는 작품을 접

17) 관련 대목은 "건넛집에 덴동어미 엿 한 고리 이고 가서 가지가지 가고 말고 낸들 어찌 안 가릿가 / 그 중에도 덴동어미 멋 나게도 잘도 놀아 춤도 추면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18) 박혜숙,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 『仁濟論叢』 8권 2호, 인제대학교, 1992.

19) 문학 치료는 '작품 서사'를 매개로 심리적인 얽힘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의 '자기서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김석회, 「문학치료학의 전개와 진로」, 『문학치료연구』 1, 문학치료학회, 2004, 2쪽.

하는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그 의미를 순환·확장해 제공해 공감과 연대를 통한 새로운 축제와 치유의 기회를 주고 있다.[20]

셋째, 처음에는 덴동어미가 사회적 통념이나 지배 가치를 재현하는 듯하지만, 본질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 인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상품경제의 발달로 가치관의 변화가 극심한 조선 후기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돈과 물질적 충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덴동어미의 삶은 잘 산다는 것의 기준과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질문과 성찰의 기회를 준다. 덴동어미는 누구보다 충실하게 물질적 세속적 가치를 추구했다. 엄청난 부를 탐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소박한 삶을 욕망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완전한 하층민으로 몰락하였다. 그러나 삶의 관점을 바꾸어 잘 산다는 것을 세속적 물질적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게 되자, 삶을 옥죄는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가난과 고난은 더해 갔지만,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자 비참한 인생을 신명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가>는 치유와 공감, 여성연대와 신명, 관점 전환의 가치를 현대인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가사는 문화콘텐츠로서 잠재력과 확장 가능성이 풍부하다.

첫째, 허구적 서사이지만 "순흥 비봉산 자락"의 화전놀이라는 구체적 배경이 명시되어 있으며 창작연대도 유추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구체성과 실재성, 역사성이 뛰어나 콘텐츠화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원천자료의 스토리텔링 시 인물, 사건, 배경을 풍성하게 만들기에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예로, 덴동어미는 임 이방의 딸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연보에서 제시했듯이 덴동어미 생애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여 콘텐츠 제작 시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덴동어미라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겪는 삶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와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드러내고 있어 당대 사회 특히 하층 세계의 동향을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덴동어미가 살

20) 최은숙, 앞의 논문, 149쪽.

았던 당시, 여성의 수절과 재가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시대상을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 서울에 참깨 무역을 하러 나섰다가 배가 난파하여 목숨만 건진 황 도령의 사연, 울산 여각 손굴노와 주인마누라도 당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구하면 구체적 역사성을 가진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선 후기 화폐경제의 발달과 도시 생활문화를 탐색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크고 지리적 장소성이 뚜렷하여, 교육 목적의 여행 및 전시 관람 콘텐츠화하기에 좋을 수 있다. 덴동어미가 신산한 삶의 여정을 통해 거쳐 간 곳은 순흥, 상주, 경주, 울산, 다시 순흥이다. 상주, 경주, 울산은 당시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는 곳이었다. 덴동어미는 이 도시를 거치며 불안정한 화폐경제 속에서 하층민으로 몰락해 재기하지 못한다. 도시 주변부로 밀려난 하층민의 애환이 잘 드러난 <덴동어미화전가>의 선행연구 자료를 영남지방의 당시 사회경제 상을 소개하는 콘텐츠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화전놀이와 관련해 풍부한 지식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여러 지역의 화전놀이 행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지역 행사에서 화전놀이가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화전놀이의 절차와 문화적 성격이 담긴 화전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단순한 화전 만들기 체험에 그치고 있다. <덴동어미화전가>에 나타난 화전놀이 절차나 준비과정은 의복, 음식 등 당시의 생활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가 여타 화전놀이 행사에 제공된다면 축제와 공감, 소통이라는 화전놀이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콘텐츠 기획과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전놀이에 담긴 축제와 치유는 위로와 공감, 여성연대와 신명으로 가능하다. 치유, 위로, 공감, 연대, 신명은 현대인에게도 필요한 감성 영역이다. 예로,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는 '고난의 극복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삶의 의지를 모든 여인의 집단적 신명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해 화전놀이의 축제성에 더욱 큰 비중을 둔' 공연콘텐츠로 제작됐다. 이런 의도가 호응을 얻었기에 장기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넷째,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가가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의 것이기 때문에[21] 이 작품을 중심으로 '화전가류'를 집성해 화전가 특화 자료를 전시하는 관광콘텐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내방가사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는 안동의 내방가사전승보존회가 내방가사 경창대회, 창작대회 등을 실시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방가사 문학관은 없다. 만약 내방가사 문학관 혹은 화전가 문학관이 건립된다면 최소한 그중 일부를 <덴동어미화전가>에 관한 자료나 연관 콘텐츠를 모아서 꾸며 전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의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설립도 충분히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섯째, <덴동어미화전가>는 영주나 경북 지역 콘텐츠로서만이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덴동어미와 같은 불행한 여성들의 생애는 역사적 보편성을 가지므로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소재로서 가치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덴동어미는 남편 넷이 모두 죽고 가난과 질병 등의 운명에 휘둘렸으나 끈질기고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잃지 않는 낙천성을 보여주는 여성이다. 숱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 '결핍'된 과부에서 '주체'로 서게 되는 여성이며, 결핍을 뛰어넘어 가부장 중심의 여성 욕망과 그 자신이 부여한 삶과 죽음에서조차 자유로워지는 인물이다.[22] 이러한 인물형상은 어떠한 형태로든 억압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 여성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덴동어미화전가>를 문화콘텐츠화할 때 작품에 내재한 여성 주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잘 담아낸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덴동어미의 인생은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많다. 이를 창작자에게 소재로 제공할 수도 있다. <덴동어미화전가>처럼 보편성을 담보한 원천소재는 대중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러한 소재는 시대의식에 맞는 다양한 변용 과정에서도 원형적 좌표가 되어주기 때문에 창작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21) 전체 30편의 작품 중 25편의 작품이 영남지역에서 채록된 화전가에 해당한다. 권영철, 『규방가사 Ⅰ』, 정신문화연구원, 1979.

22) 홍나래, 박성지, 정경민, 『악녀의 재구성 – 한국 고전 서사 속 여성 욕망 읽기』, 들녘, 2017, 227쪽.

Ⅲ.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현재 <덴동어미화전가> 소재의 창작 콘텐츠는 박정애 장편 소설『덴동어미전』, 김범선 장편 소설『덴동어미화전가』,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가 있다.[23] 본고는 <덴동어미화전가>의 대중적·산업적 콘텐츠화와 관련이 많은 마당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소개

마당놀이는 춤이나 노래, 재담 등으로 이루어지며 구경꾼들이 신명이 나도록 흥을 돋우는 것이 목적이다. 영주의 마당놀이는 2016년 초연 당시 제목이 <덴동어미전>이었던 것이 <덴동어미 화전놀이>로 바뀌어 연행되고 있다. 원천소재를 콘텐츠화할 때 중요한 것은 매체에 따른 변용의 적절성이다. 연도별 기존 공연의 분석 결과[24], 초연작의 경우 원작의 줄거리를 거의 그대로 빌려와 공연시간이 길고, 연기, 대사, 음악, 무대 등도 완성도가 낮았다. 그러나 공연이 장기화하면서 단점이 보완되고, 공연물이 지닌 압축과 생략, 강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연행한 마당놀이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5]

---

23) 박정애,『덴동어미전』, 한겨레출판, 2012.; 김범선,『덴동어미화전가』, 퍼플, 2018.;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2016년 초연해 현재까지 공연 중.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영주지회 제작); 그 밖에 이창식의 시「덴동어미아리랑」이 있다. 이창식,『눈꽃사원』, 새미 국학자료원, 2017. <덴동어미화전가>의 선행 문화콘텐츠 소개와 분석은 김나연, 앞의 논문, 37~71쪽 참조.

24) 2016년, 2017년 작품은 영상물로, 2018년은 3회의 공연(영주 선비문화축제, 풍기인삼축제, 경북도청 동락당) 관람과 1회의 영상물 분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25)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공연 안내문, 2018.09. 참조.

<표 2>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의 구성

순서	제목	내용
여는 마당	길놀이	풍물패의 마당놀이 시작 알림 마을 부녀자들이 등장해 화전가를 부름
첫째 마당	온산에 꽃 피었네	화전놀이 준비
둘째 마당	화전놀이	화전놀이, 청춘과부 하소연, 덴동어미의 이름 유래 묻기
셋째 마당 (덴동어미 마당)	팔자 도망 못 할지라, 이 내 말을 들어 보소	덴동어미 이야기 1(첫 혼인) 덴동어미 이야기 2(두 번째 이 승발과 혼인) 덴동어미 이야기 3(세 번째 황 도령과 혼인) 덴동어미 이야기 4(네 번째 조 첨지와 혼인) 수동별신굿(화재로 조 첨지가 죽고, '덴동어미'가 됨)
넷째 마당	꽃 화자 타령	청춘과부의 타령
닫는 마당	어울마당	연기자들이 관람객을 끌어들여 함께 춤을 춤

2.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분석

<덴동어미 화전놀이>는 원작 가사의 줄거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한된 공연시간으로 인해 장르 특성상 몇 부분을 축소·생략하여 긴급하게 처리한다. 첫째 마당에서 부녀자들의 화전놀이 준비, 치장, 승지 찬미 과정 등이 짧게 처리되고, 둘째 마당에서 바로 화전놀이의 장이 펼쳐지는 식이다.

화전가를 마당놀이와 같은 민속놀이 형태로 공연할 때는 배우의 대사와 동작, 독창과 제창, 춤과 연기, 등장과 퇴장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생활문화로서의 연행성이 잘 드러나도록 재현해야 한다.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의 공연 요소를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배우의 대사는 원작의 내용을 영주 지역의 방언과 어투로 자연스럽고 표현하여 외지의 관람객에게는 지역 특성을 전달하고 지역민 관람객에게는 친

근함을 유발하고 있다. 배우들은 연기뿐만 아니라 춤과 노래에 능숙해 여러 장면에서 전통춤에 현대적 춤사위를 혼합한 군무와 합창을 선보인다.

무대 장치는 매우 단순하여 꽃이 활짝 핀 비봉산을 프린트한 대형 장막이 무대 전면에 걸려 있고, 무대 위 소도구는 덴동어미가 쓰러져 있거나 원님 조등내가 등장할 때 활용하는 작은 바위 하나뿐이다. 배우들의 의상은 봄날 화전놀이에 어울리는 형형색색의 복색이며, 화전놀이나 군무를 출 때 꽃이 달린 채반이나 바구니, 소고 등을 활용해 화전놀이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장면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원작에는 없는 해설자들인 '풍류객'과 '촐랑이'이다. 마당놀이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고전의 흥미로운 특정 부분만을 확대해 공연한다. 그러다 보면 장면 전환이나 서사가 단절될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배우들이 주도적으로 관객에게 의견을 묻고 참여를 유도해 배우와 관객 간의 직접적 소통이 형성된다. 해설자는 마당놀이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26]

풍류객과 촐랑이는 마당놀이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시작 부분에서 마당놀이가 이뤄지고 있는 공간적 배경을 소개하며 관객들의 이목과 주의를 집중시킨다. 중간에는 줄거리를 압축하거나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한다. 예로, 세 번째 남편인 황 도령이 산사태로 죽었을 때 풍류객은 주모와의 대화를 통해 관객들이 황 도령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풍류객과 촐랑이는 관객과 서사의 흐름 사이에 적절히 개입하여 마당놀이의 분위기를 살리고 관객을 끌어들여 흥미를 높이고 있다.

춤과 노래는 전통춤과 창작 춤, 민요와 창작곡, 판소리, 판굿, 사자춤, 넋건지기 굿 등이 등장하는 융합 콘텐츠의 양상을 보여준다. 전통놀이를 강조하기 위해 탈춤을 도입해 풍류객과 촐랑이가 탈을 쓰고 나와 극을 이끌어가는가 하면, 풍류객 혼자 사자춤 장면을 연출하거나, 촐랑이 혼자 등장해 덴동어미의 서글픈 심정을 노래하기도 한다. 화전놀이에 참여한 아낙네가 황

26) 손희영, 「극단 미추 마당놀이 연구-축제적 성격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2~24쪽.

도령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넋을 위로하는 굿의 창자로 등장하거나, 사자춤 장면에서는 조 첨지가 사자 역할로 나온다. 소수의 배우와 무대 효과를 적절하게 활용해 간결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연출을 하고 있다. 황 도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산사태 장면에서는 단순한 음향효과만으로 충분한 의미를 전달한다. 불이 나는 장면에서는 불꽃이 그려진 부채 소품을 긴박한 군무에 활용하여 위험하고 절망적인 화재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삽입된 곡은 대부분 창작곡이 많다. 창작곡의 경우 원작의 가사에, 곡조는 민요와 창극에 등장하는 국악가요의 감성이다. 이로써 편안하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전달한다. 독창은 청춘과부와 촐랑이가, 합창은 화전놀이 참여 여성들이 함께 부른다. 시종일관 악사들의 풍물놀이와 배우들을 활용하여 각 장면의 흥겹거나 애절한 분위기를 적절한 노래와 춤으로 표현해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마당놀이는 관람객의 흥미를 유지하고 제한된 공연시간 내에 줄거리를 전달해야 하는 서사적 특징으로 인해 원작의 개작이 필요할 때가 있다. 괴질로 죽는 두 번째 남편 이승발의 죽음의 경우, 원작에서는 손굴노의 집에서 받은 세경으로 이자를 받고 빌려주며 돈을 불리다가 이승발이 괴질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마당놀이에서는 경주 마님 덕분에 갈 곳이 생긴 덴동어미 내외가 기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이승발이 쓰러져 죽는 것으로 표현된다. 황당해하는 덴동어미에게 달려온 의원(醫員)은 괴질로 인한 사망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이는 마당놀이가 슬프고 애절한 장면을 일부러 희화화하여 작품의 무거움을 경감시키려는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다.[27]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장면을 신명과 해학을 가미한 구성과 경쾌한 춤과 음악으로 중화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해설자뿐만 아니라 덴동어미 등 다른 배우들도 관객의 흥을 돋우려고 극중 공간과 관람객의 공간을 넘나들며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관객은 적극적

27) 공연안내문에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는... (중략)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덴동어미 일대기를 간결하게 극중 극 형태로 만들었고, 어두운 측면을 절제하고 화전놀이의 축제성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전개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으로 극 중 공간에 참여하여 소통한다. 첫 혼례 장면에서는 관객을 신랑 신부 역할로 끌어들이고, 엿장수 조 첨지 장면에서는 배우들이 객석에 들어가 엿을 나눠준다. 현대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선글라스를 쓴 이승발이 바퀴 운동화를 신고 쭉 미끄러져 들어오며 등장하거나, 원님인 조 등내가 등장할 때는 동계올림픽의 인기 종목인 컬링 장면을 시의적절하게 재현하고, 재산몰수를 당하고 쫓겨가는 이승발은 느린 동작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마당놀이는 축제의 소통 수단으로 관람객의 문화적·사회적 동질성을 하나로 유도하고 놀이형식을 강조한 춤과 노래, 음악, 과장된 현대적 소품 등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이로써 관람객과 소통하게 되는데 <덴동어미 화전놀이>도 이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덴동어미 화전놀이>는 단순한 원작의 재구성이라기보다는 현대적 개작·변용에 가깝다.[28] 마당놀이의 장르 특성에 맞게 원천서사를 축소·생략·개작하여 기존의 등장인물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해설자들을 등장시켜 관객 참여를 유도한다. <덴동어미 화전놀이>에 대해 관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29] 그렇기에 2016년 이래 현재까지도 연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덴동어미 화전놀이>가 지역관광상품의 특성상 놀이 성격이 강조되는 바람에 현실 비판과 풍자라는 마당놀이 본연의 특성이 다소 미약하다는 것이다. 마당놀이는 해학과 풍자를 통해 서민의 애환을 그려낼 뿐 아니라 저항정신을 표출할 수 있는 장르이다. 원작인 <덴동어미화전가>의 경우 갖은 고생을 다 해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서민의 모습과 비참한 시대상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당놀이 또한 원작의 비판과 풍자의 성격을 추출해 적용한다면 날카로우면서도 해학이 넘치는 개선된 마당놀이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각 장이 분명하게 구

28) 김나연, 앞의 논문, 70쪽.

29) 관객 설문조사 결과에 스토리, 연출, 연기에 대해 좋았다는 의견이 많다. 사) 한국예총영주지회,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평가보고서』, 2017.12.

분되어 있으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 해설자가 중간에 풍자나 해학의 내용을 충분히 삽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시의성에 맞추어 어떤 요소를 넣거나 빼기에도 좋은 구성이다. 가사 장르는 개방성과 서사성이 특징이다. 원천 가사가 지닌 이러한 특성에, 마당놀이 장르의 생동성과 현실성,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특성을 결합한다면,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는 더욱 완성도 높은 지역 대표 공연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Ⅳ.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학관광 콘텐츠화 방안

고전 시가를 원천소재로 하여 가장 활용사례가 많은 것은 전시, 축제, 여행, 테마파크 같은 관광콘텐츠 분야라고 할 수 있다.[30] <덴동어미화전가>는 스토리텔링의 원천자료나 문화콘텐츠 개발 소재로서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덴동어미화전가>가 지니는 내적 가치와 현재의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가 놓인 외적 환경과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덴동어미화전가>의 새로운 문화콘텐츠화 방안으로 문학관광 콘텐츠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그 가능성과 방안을 탐색해 본다.

1.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필요성

문학은 한 국가에만 존재하는 작가와 작품이라는 유일성을 가진 고부가가치의 문화자원이다. 문학을 관광사업과 연결한 문화관광은 서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허버트(D. Herbert)는 문학 관광을 관광객이 그들의 실제 삶 속에 존재하는 작품과 관련된 장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1]

---

30) 박진태, 「13장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축제로의 회귀」, 『한국문학의 경계 넘어서기』, 태학사, 2012.

31) David Herbert, "Literary places, Tourism and the heritage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8(2), A Social Sciences Journal, 2001, p.8. 전윤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학관광 콘텐츠를 구상할 때 최근 관광 분야의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자체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하나로 문학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관광이 자연경관, 휴식, 오락 등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또는 인문관광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탐구, 탐방, 체험, 답사 형태로 관광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변화에 주목하며 <덴동어미화전가>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로서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덴동어미화전가>의 화전놀이가 행해졌던 곳이 순흥의 비봉산 자락이다. 가사 문학은 인문학적 정신의 생활문화라는 의미를 지니며, 관광의 키워드인 '장소'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가사 문학은 특정 장소와 관련지어 관광 자원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구축된 관광지라면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하여 관광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32] 작품 속에 등장하는 지리적 배경 장소에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이 있다면 관람객이 허구의 서사를 현실적으로 추인하게 하기에 유리하고, 그에 따라 관람객이 얻는 장소 감(sense of place)[33]도 좀 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주시는 순흥 일대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선비 세상'을 건설 중이다. 이곳에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상설공연장을 만든다. 관람객이 단순한 마당놀이 관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덴동어미'나 '화전가' 혹은 '내방가사'와 관련해 깊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가 있다면 관광의 의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가>에는 화전놀이에 대한 정보나 체험, 화전놀이에 참여

경, 「문학관광자원으로 본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No.13,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18, 145쪽 재인용.

32) 고순희, 앞의 논문, 14~15쪽.

33) 허구의 서사적 경험이지만 가상의 공간 정보를 의미화한 관람객이라면 그와 밀착된 현실 공간을 돌아보며 의미를 강화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와 경험화 된 시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은 Yi-Fu Tuan, 구동회,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287~316쪽 참조.

한 여성들의 치장이나 생활 문화적 요소,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셋째, 순흥은 최초의 경기체가 <죽계별곡>을 지은 안축의 고향이며, 소수서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등 유교적 양반 남성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하층 여성의 이야기가 담긴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이 생긴다면, 영주가 선비문화의 본향일 뿐 아니라 내방가사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덴동어미화전가>를 보유한 고전문학의 고장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학적 자산들을 연계한 문학 체험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다.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관광의 다양성 획득으로 풍부한 관광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은 기존의 가사문학관과 차별화할 수 있다. 현재 가사 문학 소재의 문학관은 전남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이 유일하다. 전남 담양은 사림(士林)인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등 18편의 가사가 전승해 가사 문학의 산실로 불린다. 가사 문학 자료를 비롯하여 송순의 『면앙집』과 정철의 『송강집』 및 친필 유묵 등 귀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사림 양반들은 담양 일원에 누(樓)와 정자(亭子)를 짓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벗 삼아 시문을 지어 노래하였다. 실제 한국가사문학관 인근에 식영정·환벽당·소쇄원·송강정·면앙정이 있어 한국가사 문학 창작의 밑바탕을 확인할 수 있다.

담양은 남성 양반 중심의 호남 가사 문학의 중심지이다. 반면 영남문화권은 규방가사의 창작이 활발해 양반가(家) 여성이 지은 가사 문학작품이 필사본 형태로 대거 전해지고 있다. 영남권 내방가사 중에서 '화전가'는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덴동어미화전가>는 콘텐츠화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다. 영남지역은 내방가사의 고장이면서도 특화된 자료관 하나가 없는 상황이다. 순흥에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이 만들어진다면 최초의 화전가 문학관[34]으로서 지역 정체

34)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은 태백산맥문학관, 아리랑문학관과 같은 작품 배경형 문학

성과 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남의 내방가사, 경북 북부의 화전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집성해 담양의 가사문학관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방가사 문학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고전 시가 작품 하나로 과연 문학관 건립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전 시가를 소재로 한 지역 콘텐츠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고려가요 <정읍사> 관광콘텐츠이다. <정읍사>를 토대로 망부 상을 건립하고, 사우(祠宇) 건립과 제례 거행, 노래비 건립, 가무악극 창작 등을 통해 정읍사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익산 서동 축제, 울산 처용 문화제 등도 고전 시가를 소재로 한 콘텐츠이다. 이러한 원천소재들은 모두 오래된 고전이며 짧은 시가 작품이기에,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문학관 건립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반면 <덴동어미화전가>와 같이 화전놀이가 포함되어 있고, 여성들의 삶과 하층민의 인생유전을 매우 사실적이고 상세하게 담아낸 작품은, 적절한 주제 선정과 문학관의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충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2.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의 원칙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설립 목적은 첫째,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문학유산을 관광콘텐츠화 하여 많은 내방객을 유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인문학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의 자부심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셋째, 설립 중인 영주시의 한국문화테마파크 선비 세상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알려진 마당놀이 외 다양한 문화콘텐츠화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그 잠재력을 발굴하는 기초 자료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문학관협회에 가입된 문학관은 74개소에 달한다.[35] 문화관광연

관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유형은 대상 작품 속에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조성된 '문학 콘텐츠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다.

35)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검색일자 : 2019.01.05. www.munhakwan.com

구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문학관이 지역 출신의 문인과 지역 홍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관람객을 수동적 구경꾼으로 만드는 동선 설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람자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유사하며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이다.[36]

제대로 된 문학관 운영을 위해서는 허버트가 제시한 '특별한 문학 장소의 조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조건은 첫째, 문학 장소의 일부인 문학관 또는 작가와 관광객 여행객이 연결될 수 있고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야기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객 여행객의 기억과 노스탤지어(감성)를 자극하여 문학관의 상징성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학관의 주변 환경과 연결하려는 노력과 장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요구된다. 셋째, 전시를 통해서 작가나 작품 주인공과 정서적 연결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획방식을 고려해야 한다.[37] 이러한 접근은 문학이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예술의 한 종류이며, 감동과 쾌감을 수반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이라는 문학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문학관은 문학의 본질과 가치를 중심에 두고 관광콘텐츠화 할 때 설립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방문자가 공간에 내재한 이야기와 현장감 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관람객이 스스로 문학관의 대상(덴동어미화전가)과 장소 정체성(순흥, 비봉산 등)을 인상적인 이야기로 조합·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공간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대상과 장소 정체성에 맞는 문학관을 기획하려면, 관람객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세부 공간을 각각 차이 나게 주제화하고 공간별 체험과 향유 방식을 다르게 조성해야 할 것이다. 관람객의 성별, 연령, 학력, 지역, 관심사 등을 고려해 참여 요소를 늘리고, 학습과 놀이 방식의 다각화도 필요하다.[38]

---

3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근대문학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110쪽.; 안승범, 최혜실, 「문학관 유형에 따른 공간 스토리텔링 활용 연구-홍사용 문학관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51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69쪽.; 김종우,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문학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대구문학관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54쪽.

37) David Herbert, *Ibid*, p.315, 전윤경, 앞의 논문, 146~147쪽 재인용.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주요 대상은 원천소재의 특성상 1차 대상을 30대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으로 설정해 여성적 공감대를 확보한다. 또한, 그들과 동행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은 2차 대상으로 설정해 교육적 활용도를 참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은 21세기 관람자들의 소통방식과 원하는 경험을 고려해 문학관으로써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학관을 단순한 실내 전시 관람 위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흥 비봉산의 화전놀이 언덕 오르기(가칭 '덴동어미 길'), 언덕에서의 화전놀이 체험 등으로 문학관 운영 프로그램을 다각화한다. 화전가가 불렸을 당시의 생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 관람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덴동어미와 정서적 연결의 고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나열식 정보 관람 외에 작품 속 주인공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체험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도부장사 황 도령과 덴동어미가 과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던 것인지 무거운 물건을 실은 지게를 지거나 광주리를 머리에 이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덴동어미화전가>의 배경인 비봉산과 <죽계별곡>의 배경지인 죽계구곡까지 연결하는 문학기행 코스를 만들 수도 있다.

3.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예시

스미스(Yvonne Smith)와 허버트에 따르면, 문학관을 문학관광 자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학관 입구, 내부 전시공간,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연결성, 통찰력과 다각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9]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도 이를 적용해 입구, 내부 전시공간(덴동어미화전가 자료관, 덴동어미화전놀이 재현관, 덴동어미화전가 문화관, 덴동어미화전가 스토리텔링관), 환경 등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38) 최혜실 안승범, 앞의 논문, 68~69쪽.
39) 전윤경, 앞의 논문, 147~148쪽.

1) 입구

문학관이 위치한 순흥을 소개한다. 순흥의 한자 順興의 의미를 덴동어미의 인생 담과 연관해 풀어낸다. 順은 '순하다, 좇다, 거스르지 아니하다, 도리를 따르다, 잇다, 이어받는다'는 뜻이고, 興은 '마음이 즐겁고 좋아서 일어나는 정서, 일다, 일어나다, 일으킨다'는 뜻이다. 순흥에 대한 해석을 숱한 고생 속에서도 운명에 굴하지 않는 덴동어미의 끈기와 강인함,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과 연결해 소개한다. 여기에는 가사의 화전놀이 장소 소개 대목[40]이 제시되어야 한다. 작품과 등장인물, 관람객과 장소를 연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 덴동어미 캐릭터

<그림 2> 자라목의 덴동어미

덴동어미 캐릭터와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로 수건을 쓰고 엿가위와 엿 고리를 인 마당놀이 캐릭터 덴동어미(<그림 1>)[41], 거북목에 아기를 업은 60대의 덴동어미의 모습(<그림 2>)[42]을 활용할 수 있다.

40) "순흥이라 비봉산은 이름 좋고 놀기 좋아 골골마다 꽃 빛이요 등등마다 꽃이로세 호산나비 병나비야 우리와 같이 화전하나"

41) 「'덴동어미' 캐릭터, 영주 특산품에 활용」, 『안동 MBC뉴스』, 2017.04.03. https://www.youtube.com/watch?v=6oQGchV3IJE

42) 서대석 엮음,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임주탁, 「불행하지만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억척 여인」, 휴머니스트, 2008, 328쪽 삽화.

2) 내부 전시공간

(1) 덴동어미화전가 자료관

<덴동어미화전가>가 내방가사에 속하는 만큼 내방가사 전체를 개관하고, 영남지역 여성과 내방가사의 관계를 소개하여, <덴동어미화전가>의 위상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영남의 내방가사를 유형 별로 전시하면서 화전가류와 <덴동어미화전가>의 차이와 위상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덴동어미화전가>가 실려 있는 『소백산대관록』을 비롯해 경북 북부의 화전가 필사본, 연구성과물, 출판물 등과 전국 단위의 화전가를 모아 전시할 수 있다. 범주화를 영주 지역권으로 잡는다면 영주 무섬 마을에서 전시 중인 내방가사도 포함한다.

한편, 인물전 형식이 강한 <덴동어미화전가>의 역사성을 확인해 덴동어미가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재적 인간임을 소개해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앞의 <표 1>의 연보에서 보듯이 가사 속의 지명, 사건, 인물 등을 고증하고 추정하여 '덴동어미, 그녀는 누구인가?'라는 표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가사 속에 등장하는 역사적 실체인 조공제(趙公堤), 병술년 괴질, 순흥 인근의 장터들, 수동별신굿 등을 소주제로 한 자료의 확장적 전시도 가능하다.

<덴동어미화전가>는 19세기 당시 화폐가 통용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면서 도시가 성장해 가던 시대의 정황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과 연결된 사회경제적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전시할 수도 있다. 예로, 덴동어미가 이승발과 함께 걸식하다가 경주 읍내에 들어가서 "안팎 담살이"(더부살이)하게 된 여객은 장시를 통해 발달했다. 여객주인은 단순한 숙박업 외에 중간 유통업, 금융업 등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농촌을 떠나 유리걸식하던 유민들은 도시 주변에서 임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했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금으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었으나, 밑천이 없는 떠돌이 장수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부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덴동어미와 이승발은 살뜰히 모은 돈으로 일수 월수를 놓아 돈을 불렸지만, 괴질로 이승발과 채무자들이 모두 죽는 바람에 덴동어미는 다시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해 한번 몰락한 후에는 재기가 어려웠다. 중인 출신이었던 덴동어미는 경제적 기반을 잃은 후 계속 하층민으로 살게 되었다. 황 도령과 살면서 “영감은 사기 한 짐 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고 나는 사기 광주리 이고 가가호호에 도부”하였지만 “도부장사 한 십 년 하니 장바구니에 털이 없고 모가지가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의 삶을 살았다. 관련 대목을 제시하면서 덴동어미의 삶을 연상할 수 있는 풍속도 등을 시각적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40> 김준근,
<걸식녀(乞食女)>

<그림 41> 김홍도,
<부상도(負商圖)>

(2) 덴동어미화전놀이 재현관

화전놀이는 해방을 꿈꾸는 여성들의 비일상적 체험의 원형적 놀이문화이다.[43] 여성들에게 해방과 연대라는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안겨주는 체험이다. 화전놀이 재현관에서는 화전놀이라는 봉건시대 여성들의 민속놀이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생활문화콘텐츠(화전 놀이도구, 화전놀이 절차, 화전의 재료, 화전 만드는 법 등)를 화전놀이의 내용과 절차, 문화적 성격을 살려 전시할 수 있다. 재현은 기존의 인형이나 미니어처 제작을 포함해 문화 신기술을 활용한 구현이 적절할 것이다. 시청각 기술은 물론 여건이 된다면 증강현

43) 백순철, 앞의 논문, 225쪽.

실 등 신기술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해 방문객이 화전놀이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참여형 관람'이 이뤄지게 할 수 있다. 설명 자료 또한 다변화시켜 방문객과 적극적 소통을 추진해야 한다.[44]

현재 각 지역 행사에서 화전놀이를 재현하고 있다. 대체로 전통놀이, 음식체험, 각종 경연의 부대 행사로 치르며, 화전 만들기, 화전 시식, 화전 전시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화전놀이 중 화전 굽기, 회식, 유흥소영의 부분만을 축제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다. 화전놀이 절차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지역 화전놀이 행사에서 활용한다면 기존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덴동어미의 일생 담이 펼쳐진 화전놀이 현장은 '여성들의 생명력이 발현되는 집단적 신명의 한 판'이다. 다시 말해 화전가의 전통과 관습을 이해하려면 여성의 생애와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45] 화전놀이의 해방과 연대를 통한 치유와 소통의 맥락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생애 경험이나 현실 인식을 털어놓고 공유하는 행사를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가사의 4.4 음보를 흉내 낸 '내 인생 사행 시 짓기 대회', 화전놀이 당시 덴동어미 나이인 '60세(방문자의 나이에 따라 과거, 현재 혹은 미래가 될 수 있음)의 나에게 편지 써보기', 덴동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듯이,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구술 생애 들려주기'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콘텐츠를 여성 중심의 놀이문화와 접합시킨다면 화전놀이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획득하면서도 현대적 의미를 지속할 수 있는 문화로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화전놀이 콘텐츠에서 화전가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가 중에서도 소통, 공감, 연대의 의미가 유독 강력하므로 콘텐츠 소재로서 가치와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

44) 「전국의 문학관을 활성화할 방안은? 한국문학관협회,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한 아카이빙 작업 강조해」, 『뉴스페이퍼』, 2018.09.11. https://blog.naver.com/newspaper3859/221356740144

45)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회, 2005, 123~145쪽.

(3) 덴동어미화전가 문화관

<덴동어미화전가>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전시할 수 있다.

먼저 당시 여성들의 의복과 치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덴동어미화전가>의 전반부 화전놀이 준비 부분에는 참여 여성들의 의복과 치장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있는 부인”과 “없는 부인”, “열일곱 살 청춘과녀” 등 양반, 상민, 하층계급 여성들의 의복과 장신구 자료를 전시할 수 있다. 있는 부인과 없는 부인의 차림은 화장과 댕기, 비녀, 노리개 등과 같은 단장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의복의 소재와 종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46] 작품 속 복식 묘사는 이 지역 평민 여성들이 향유한 단장과 복식, 착장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전놀이 참여 여성들을 호명하는 택호를 구체적인 지명과 관련된 인문 지리적 자료로 집성해 전시할 수 있다.[47] 예로, 덴동어미가 불행한 여성들의 생애를 언급할 때 “화령댁, 장임댁, 안동댁, 월동댁, 단양이네”[48]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택호는 혼인하여 순흥 지역에 이주한 여성들의 출신지를 알려준다. 호명되는 여성들이 고유성과 실재성을 가진 등장인물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덴동어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청춘과부가 봄 춘자 노래를 부를 때 쏟아져 나온다. 청춘과부는 여성들의 거주지 명의 발음과 시구를 연결해 하나하나 재치 있게 호명한다. “맑은 바람 솰솰 불어 청풍댁네 봄 춘자, 바람 끝에 봄이 온다 풍기댁네 봄 춘자” 등이다. 자연부락 명칭을 단서로 하여 해당 마을의 풍경과 역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제월교편 금성춘 청다리댁 봄 춘 자”에서 청다리댁의 고향은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이다. 소수서원 곁을 흐르는 죽계수 위에 놓인 다리가 바로 청다리 즉 일명 제월교이다.[49] 흥미롭게도 영주에서는 아이들을 놀릴 때 ‘청다리 밑

46) 이경숙, 이은주, 「<덴동어미화전가>의 복식 연구」, 『2018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88~90쪽.

47) 이하 여인들 출신지 관련 내용은 김하라, 앞의 논문, 421~422쪽.

48) 화령은 상주시 화령면, 장임은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월동은 안동시 녹전면 신평리 너머골로 추정된다.

49) 봄 춘자 노래에 등장하는 택호 관련 내용은 김하라, 앞의 논문, 423-426쪽.

에서 주워 왔다'는 말을 흔히 한다고 한다. 작품 속 지명은 모두 현재의 지명을 알 수 있는 곳이며 관련된 인문학적 정보가 풍부하다. <덴동어미화전가> 등장인물의 택호와 지역 정보를 연결하고, 지역의 지리적 고증자료인 '순흥부 고지도(古地圖)' 등과 지금의 순흥 사진을 비교해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덴동어미가 이승발과 재혼한 후 집안이 몰락하자 온갖 살림살이를 내다 파는데 이때 등장하는 생활용품들[50]과, 경주 객주의 물품, 엿장수 조첨지의 엿을 고는 물품과 정보를 소개할 수도 있다.

한편 덴동어미의 고난은 거듭되는 개가와 상부와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봉건시대 여성들에게 개가와 수절은 무엇이었으며, 유교적 이념 속에서 어떻게 강요되고 내면화된 것인지, 은장도, 열녀문 같은 조선 여성의 자료를 취합하여 전시할 수도 있다. 또한, 덴동어미는 재가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고, 남편에게 매를 맞거나 쫓겨나거나, 음독자살한 불행한 여성에 관해 설명한다. 이들은 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폭력적 가부장제가 맞물린 낯익은 비극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이처럼 불행하지만, 운명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들의 생애는 역사적 보편성을 내포한다. 이 주제를 확대하여 <덴동어미화전가>의 여성 문학적 가치를 소개하는 현대의 출판물이나, 주어진 운명과 끝까지 투쟁하는 여성을 소재로 한 국내외 예술작품(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 등)을 전시할 수도 있다. 아예 '운명을 극복하고 분연히 일어선 여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성 중심의 문학관이라는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만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4) 덴동어미화전가 스토리텔링관

<덴동어미화전가>의 이야기 구조와 등장인물의 특징 등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이미 창작된 문화콘텐츠를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

50) "대양푼 소양푼 세숫대야 큰 솥 작은 솥 단밤 가마 / 놋주걱 술국이 놋쟁반에 옥식기 놋주발 실굽달이 / 게사다리 옷걸이며 대병풍 소병풍 산수병풍 / 자개함농 반다지에 무쇠두멍 아루쇠 받침 / 쌍용 그린 빗접고비 걸쇠등경 놋등경에 / 백통재판 청동화로 요강 타구 재떨이거짐 / 용두머리 장목비 아울러 아주 훌쩍 다 팔아도"

박정애, 김범선 장편 소설의 주요 줄거리와 의의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마당놀이 <덴동어미화전놀이>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원작 <덴동어미화전가>가 지닌 작품성과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여성 문학에 나타난 덴동어미 유형의 인물이나,[51] 대중문화콘텐츠에 등장하는 인물형상을 비교할 수도 있다. 예로 일본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의 여주인공 '마츠코'의 영상과 '덴동어미'의 자기 서사를 비교 전시할 수도 있다.[52] 인간관계에 집착하여 온갖 고초와 역경을 겪게 되는 마츠코와 덴동어미는 공통적으로 자기 서사의 흐름 속에 있지만, 덴동어미는 극복과 치유로 넘어가는 데 반해 마츠코는 죽음에 이른다는 차이가 있다.

(5) 마무리 상징 공간

관람을 마치고 나가기 전 여운이 남도록 덴동어미와 관련된 상징과 은유의 공간을 조성한다. <덴동어미화전가>가 현대인 그리고 여성에게 전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소품 연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로, 커다란 '호미'와 거친 '갈퀴 손' 혹은 이를 상징화한 '엉겅퀴꽃'을 형상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여성사를 보여주는 '한국의 가난한 여성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 사진전도 고려할 수 있다. 덴동어미가 살아온 조선 후기, 그리고 이후의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근대 이후 역사 속에서 한국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상징적 오브제를 함께 전시할 수 있다. 관람을 마친 이들이 마지막으로 덴동어미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울림을 간직한 채 전시 공간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기획이 필요한 공간이다.

---

51) 임주탁은 <변강쇠가>의 '옹녀'와 브레히트 작품의 '억척어멈'을 덴동어미와 견주어 볼 만하다고 하고 있다. 서대석 엮음, 앞의 책, 임주탁, 앞의 글, 337쪽. 연구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나, 다른 적절한 인물과 비교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2) 성정희, 「고전문학 :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과 고전시가 <덴동어미화전가> 속 여주인공의 삶의 여정과 극복 과정 탐색」, 『겨레어문학』 42권, 겨레어문학회, 2009, 193~209쪽.

3) 외부

작품과 연관된 주변 환경과 연결하는 기획은 관광객의 지적·심리적 만족을 함께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은 식영정·소쇄원 등이 많이 존재해 한국 가사 문학 창작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윤동주 문학관에는 '서시'가 새겨진 시비와 산책로 '시인의 언덕'이 조성돼 시인의 생애와 관련된 노스탤지어와 상징성을 전달하고 있다.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 외부에도 덴동어미 상(像), <덴동어미화전가>의 핵심 대목을 새긴 가사비를 만들어 덴동어미의 삶을 재사유하게 할 수 있다. 가사의 주요 대목을 연결하여 작품의 의미를 복기할 수 있는 외부 전시 코스를 만들 수도 있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 팔자 또 있는가", "건널수록 물도 깊고 넘을수록 산도 깊다", "좋을 일도 그뿐, 나쁜 일도 그뿐", "꽃 없이는 재미없어 명년 삼월 놀아보세" 등의 대목을 이으면 전체 스토리가 완성되거나, 이를 이용한 게임 형식을 개발할 수도 있다.

<덴동어미화전가> 화전놀이의 승지찬미 부분 즉 봄꽃이 활짝 핀 화전놀이 장소로서 비봉산 가는 길을 '덴동어미 길'로 조성해 진달래 등 꽃이 활짝 핀 산길을 오르는 트래킹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각 지역에서 걷기 좋은 길을 앞다투어 조성 중인데 마침 2018년 6월 순흥면에서 비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한다. 이 등산로의 별칭을 '덴동어미 길'로 명명하여 프로그램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관 건립을 통해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학 예술적 가치와 이 가사가 여성의 신산한 삶을 보여주는 보편성을 지닌 뛰어난 작품임을 널리 알려 지역 콘텐츠를 넘어 전국적, 세계적 콘텐츠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부석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좋은 시기에 영주가 또 다른 뛰어난 고전문학의 보유지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주는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대표지역으로 정체성을 확립·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적 선비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내에 하층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객은 고루

하게 느껴질 수 있는 콘텐츠 밀집 공간에서, 이색적이지만 뜻깊은 새로운 콘텐츠를 접함으로써 오히려 흥미로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주가 의미 있는 볼거리가 풍부한 문화관광지로 인식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많이 찾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경북 영주시 순흥면을 배경으로 한 조선 후기 내방가사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알아보고, 새로운 문학관광 콘텐츠로서 덴동어미화전가 문학관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했다.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볼 때 고전 텍스트인 <덴동어미화전가>가 지닌 최상의 미덕은 덴동어미라는 하층 여성 인물이 지닌 구체성과 실재성이다. 덴동어미는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다. 거친 운명에 휘둘리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는 하층민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며,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는 낙천성을 지닌 인간상이다. 덴동어미의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충분한 공감과 감동을 준다.

이처럼 매력적인 원천소재가 불과 수년 전 마당놀이를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품의 배경지인 영주 순흥의 비봉산 자락에서 2020년부터 마당놀이 상설공연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공연장 인근에 문학관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문학관이야말로 작품 자체가 지닌 문학성, 예술성, 대중성, 공감성을 널리 알리는 데 가장 적합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문학관은 <덴동어미화전가> 소재를 마당놀이를 넘어서 전국화, 세계화하는 기반 즉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가>는 화전가의 관습을 따르지도 않으며, 20세기 창작이므로 상대적으로 고전으로서의 가치도 적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기에 문학관 건립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요소가 문화콘텐츠화

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고전이라고 하여 꼭 오래되고 유명한 것이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고전 텍스트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이다. <덴동어미화전가>는 고단하고 불행한 현대인 그리고 여성들에게, 힘들지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의 고귀한 가치를 전해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내방가사 특히 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제고하여 관련 문학관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둘째, 내방가사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셋째, 이를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학관 콘텐츠를 제안함으로써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자부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본 연구가 지역 문화자원의 재인식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단행본

권영철, 『규방가사 Ⅰ』, 정신문화연구원, 1979.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김범선, 『덴동어미화전가』, 퍼플, 2018.

박정애, 『덴동어미전』, 한겨레출판, 2012.

박진태, 「13장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축제로의 회귀」, 『한국문학의 경계 넘어서기』, 태학사, 2012.

박혜숙,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3권 - 고전문학 下 : 성, 사랑, 일상』, 휴머니스트, 2006.

서대석 엮음,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임주탁, 「불행하지만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억척 여인」, 휴머니스트, 2008.

이창식, 『눈꽃사원』, 새미 국학자료원, 2017.

홍나래, 박성지, 정경민, 『악녀의 재구성 - 한국 고전서사 속 여성 욕망 읽기』, 들녘, 2017.

Yi-Fu Tuan, 구동회,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07.

논문

고순희, 「가사문학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Vol.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김나연, 「덴동어미화전가 현대적 변용의 교육적 함의」,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석회, 「문학치료학의 전개와 진로」, 『문학치료연구』 1, 문학치료학회, 2004.

김은희,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 - 치유의 과정에 주목하여」, 『한국시가문화연구』 Vol.39,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김종우,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문학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대구문학관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김하라,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집, 2017.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제14호, 인문콘텐츠학회, 2009.
류탁일, 「덴동어미의 비극적 일생」, 『제14회 한국어문학회 전국발표대회』, 1979.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의 작자 문제, 『국문학연구』 38권, 국문학회, 2018.11.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회, 2005.
박혜숙,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 『仁濟論叢』 8권 2호, 인제대학교, 1992.
박혜숙, 「주해 <덴동어미화전가>」, 『국문학연구』 24호, 국문학회, 2011.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시가문화연구』 Vol.34,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성정희, 「고전문학 :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과 고전시가 <덴동어미화전가> 속 여주인공의 삶의 여정과 극복 과정 탐색」, 『겨레어문학』 42권, 겨레어문학회, 2009.
손희영, 「극단 미추 마당놀이 연구-축제적 성격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심승구, 「한국 술 문화의 원형과 콘텐츠화 – 술 문화의 글로벌 콘텐츠를 위한 담론체계탐색」, 『인문콘텐츠학회 2005 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집』, 2005.
안승범, 최혜실, 「문학관 유형에 따른 공간 스토리텔링 활용 연구-홍사용 문학관을 중심으로」, 『石堂論叢』 51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이경숙, 이은주, 「<덴동어미화전가>의 복식 연구」, 『2018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전윤경, 「문학관광자원으로 본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No.13,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18.
최은숙, 「<덴동어미화전가>의 연구성과 및 현대적 의미」, 『국학연구론총』 제18집, 택민국학연구원, 2016.

기타

사) 한국예총영주지회,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평가보고서』, 2017.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근대문학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마당놀이 <덴동어미 화전놀이> 공연 안내문, 2018.09.

김세동, 「영주 '덴동어미전' 일본・베트남서 공연한다」, 『경북매일』, 2017.02.06.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291.

「'덴동어미' 캐릭터, 영주 특산품에 활용」, 『안동 MBC뉴스』, 2017.04.03. https://www.youtube.com/watch?v=6oQGchV3IJE

「전국의 문학관을 활성화할 방안은? 한국문학관협회,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한 아카이빙 작업 강조해」, 『뉴스페이퍼』, 2018.09.11. https://blog.naver.com/newspaper3859/221356740144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검색일자 : 2019.01.05. www.munhakwan.com

영주시청 담당자 전화 면담. 2018.12.23.

▦ Abstract

Culture Content Values and Possibility of Literary Tourism Contentization of "Song of the Mother of a Burned Boy at the Flower Festival(Dendong Eomi Hwajeon'ga)"

Kim, Gong-sook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lture content values and possible uses of "Song of the Mother of a Burned Boy at the Flower Festival"(Dendong Eomi Hwajeon'ga), which is a woman's story in Bibong Mountain, Seunheung, Yeongju, Gyeongbuk, towards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First of all, the narrative structure and character images of Dendong Eomi Hwajeon'ga are examined with its modern implications emphasized.

'Dendong Eomi Hwajeon Noli' is a traditional ground play and a major performance content of Yeongju based on the source material of Dendong Eomi Hwajeon'ga. Its structure and features are analyzed in this study with the culture content values of Dendong Eomi Hwajeon'ga investigated accordingly. In the following sections, prerequisites of utilizing Dendong Eomi Hwajeon'ga for literary and tourism contents are presented along with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program of 'Dendong Eomi Hwajeon'ga Literary Museum.' 'Hwajeon Noli,' which

is, a traditional flower-pancake folk game, depicted in Dendong Eomi Hwajeon'ga was held around Bibong Mountain in Sunheung, Yeongju. A permanent concert hall is soon to be established in Sunheung solely for 'Dendong Eomi Hwajeon Nnoli.' Tourism contents will be more diversified if the folk game performance is presented along with a tour in 'Dendong Eomi Hwajeon'ga Literary Museum.'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contributes to raising awareness of the culture content values of Dendong Eomi Hwajeon'ga from Yeongju which is the highest level 'naebang gasa.' Second, this study proposes ways to enhance economic values Dendong Eomi Hwajeon'ga particularly regarding how to utilize it as a local cultural resource. Third, this study contributes to values of 'naebang gasa,' particularly those of traditional flower-pancake songs as well as the pride among local residents.

keywords:
Dendong Eomi Hwajeon'ga, Culture Content, Traditional Ground Play, Dendong Eomi Hwajeon Noli, Literary and Tourism Contents, Literary Museum